

# 조선시대의 갑주(甲冑)

## - 명칭과 종류를 중심으로 -

박가영\* · 남윤자 · 조우현

한성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강사\*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특정한 사물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명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어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약속이기에 하나의 사물에 여러 가지 이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그중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동시대 사람들은 동일한 사물을 떠올리게 된다. 이와 같이 문헌에 기재된 많은 명칭들 중에는 동일한 형식의 갑옷과 투구[甲冑]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 또는 세부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웠던 갑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문헌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갑주의 명칭을 유형화함으로써 종류를 구분하고, 종류별로 갑주의 특징과 제작방식 및 시대에 따른 변천을 살펴본 후, 각각의 종류에 합치되는 실물·회화·사진 등의 사료를 찾아 연결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갑주의 명칭은 길고 복잡할 뿐 아니라 문헌별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兵書, 禮典, 『萬機要覽』과 『朝鮮王朝實錄』, 기타 古書와 古文書에 나타난 명칭들을 분석해 본 결과 ‘색, 신분, 재료, 갑주 부위’의 순서로 명명되었다는 원칙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명명 순서는 일반적인 복식에서도 발견되지만 갑주는 신체보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제작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기록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의 재료가 복합되어 사용되었을 때에는 갑옷의 衣부분을 구성하는 직물의 재료, 갑옷의 내부에 들어가 보호막 역할을 하는 甲札의 재료 순서로 기록되었다는 명명원칙도 찾을 수 있었다.

갑주의 명명에서 가장 중요시된 요소는 재료였

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재료를 제1의 기준으로 삼아 갑옷과 투구의 명칭을 유형화함으로써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 종류에 합치되는 유물을 찾아 연결함으로써 실물사료에 적용시켰다. 그 결과, 조선시대 갑옷의 종류는 鐵甲·皮甲·紙甲·掩心甲·緞甲·氈甲·三升甲·木綿甲·鑲子甲·鏡幡甲·頭釘甲·頭頭味甲·豆錫鱗甲 등으로 나뉘었고, 투구의 종류는 鐵冑·皮冑·掩心冑·비단 투구[帛冑와 緞冑]·氈冑·三升冑·木綿冑·藤頭口 등으로 구분되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조선 초기 3大 甲冑를 이루었던 鐵甲·皮甲·紙甲의 경우 동일한 명칭이라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 개념이 유동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세 가지 모두 동일한 형태에 甲札의 재료만 차이가 나는 札甲型이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鐵甲과 皮甲은 衣-頭釘型의 갑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紙甲은 掩心甲과 개념이 혼동되면서 점차 명칭의 출현빈도가 감소했다.

金甲은 왕의 御甲冑였고 緞甲과 氈甲은 주로 고위 장수급의 갑옷이었으며 紙甲·掩心甲·三升甲·木綿甲은 일반 병졸들의 갑옷으로 추정된다. 또한 『國朝五禮序例』에 기록된 頭釘甲과 頭頭味甲은 조선 초기의 갑주제도로써 이들의 특징이 현전하는 유물들에 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나 명칭 자체는 이후에 소멸되어 사라졌을 뿐 아니라 형태·구조·재료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衣부분에 두정으로 갑찰을 고정한 조선시대 후반기 유물의 명칭을 조선시대 초기의 명칭인 두정갑으로 통칭하기보다는 『만기요람』에 기록된 緞鐵甲冑·緞皮甲冑·木綿皮甲冑와 같이 사용된 재료를 기준으로 명명하는 편이 타당하다.